

「추석, 10월 연휴 출입국자 하루 최대 24만 5천 명」 법무부 특별 출입국심사 대책 시행

- 새벽 5시부터 출국심사 시작, 출국장 30분 조기 개방
- 입국심사 인력 60명 보강, 비상근무반 편성
- 크루즈선 25회 입항 대비 심사 간소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는 9. 23.부터 10. 11.까지(14일간) 출입국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과 외국인의 원활한 출입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출입국심사 대책을 시행합니다.

<추석 연휴기간 인천국제공항 예상 승객 수>

단위(명)

9.24.(목)		9.25.(금)		9.26.(토)		9.27.(일)	
(전체)236,020		(전체)205,164		(전체)220,801		(전체) 245,318 (24.8% ↑)	
입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출국
104,866	131,154 (25.4% ↑)	102,266	102,898	122,438	98,363	138,658 (50.8% ↑)	106,660

※ 노란색 음영은 추석 연휴 중 최대 승객 수, ()안 %는 9월 초 2주간 평균 승객 수 대비 증가율

※('26. 9. 1. ~ 14. 평균 승객 수) 전체 196,505명, 입국 91,939명, 출국 104,566명

먼저, 인천공항 출국 승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특별 대책기간 중 총 12일간 인천공항 출국장을 평소보다 30분씩 앞당겨 개방합니다.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번출국장(05:30 → 05:00), 제1여객터미널 2번출국장(06:00 → 05:30), 4번출국장(06:30 → 06:00)

심사인력은 출입국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확대합니다. 개천절 및 중국 국경절로 인해 승객이 더욱 집중되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의 비상 대책기간에는 입국심사 인력을 128명 → 188명으로 60명(47%)까지 확대합니다.

아울러 아침·주간·야간 근무자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출국장 조기 개방 시간 및 외국인 입국자가 집중되는 시간에 심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비심사부서를 포함한 인천공항청의 전 부서가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심사지원에 나섭니다.

법무부의 이번 특별대책은 단순히 심사인력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출국장 조기 개방 → 시간대별 인력 재배치 → 비상근무 인력 집중 투입 → 사전 모니터링 및 현장 대응”으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합니다.

공항 중심의 기존 대응뿐만 아니라,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항만 출입국심사 대책도 포함합니다.

추석 및 10월 연휴기간 국내 주요 항만에는 총 25회의 크루즈선 입항이 예상되므로, 입항 일정과 승객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여 항만별 심사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승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가용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심사장 혼잡과 대기시간을 최소화합니다.

※ 총 25회(부산 11회, 제주 7회, 인천 5회, 여수 2회) 중 10만톤급 이상 14회 입항

크루즈 자동심사대 등 첨단 출입국심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항만별 여건에 따라 복수항 크루즈 심사 간소화 10회, 국외 선상심사 5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관광객의 신속한 입국을 지원합니다.

※ (복수항 크루즈 심사) 제주, 부산 모두 기항하는 경우 최초 입항 심사기록을 활용하여 심사를 간소화
 ※ (국외 선상심사) 해외 출발지항에서 출입국공무원이 미리 크루즈에 승선하여 국내로 운항하는 동안 입국심사 수행

또한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서도 사전정보 분석을 통한 위험요소 선별과 현장 심사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한 출입국심사와 빈틈없는 국경관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 장관(직무대행 차관 이진수)은 “추석과 10월 연휴기간 국민과 외국인이 공항과 항만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입국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부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책임자	과 장	김태형 (02-2110-4035)
		담당자	사무관	이동용 (02-2110-4045)
		담당자	사무관	양창부 (02-2110-4324)

□ 국내 복수기항 크루즈 심사 절차 간소화

- (대상) 국내 복수기항 크루즈(ex, 해외→제주→부산→해외)
- (방식) 대규모 승객의 신속한 하선 입국을 위해 국내 첫 입항지에서 일괄 대면 심사하고, 국내 두번째 차항지에서는 대면심사 생략, 바로 하선(단, 차항지 최초 하선자는 차항지에서 별도 심사)
- ※ 국내 복수기항 크루즈의 이탈자 발생 등 관리 강화 필요 시, 국내 선상심사(국내 차항지 관할기관 소속 출입국심사관이 국내 첫 입항지로 출장, 크루즈 승선 후 심사) 및 1:1 대면 확인 등 실시

□ 국외 선상심사 확대로 심사 절차 간소화

- (대상) 대형·초대형 크루즈 2대 동시 항만 접안 시, 크루즈심사장 협소 또는 미설치된 경우 등
- (방식) 출입국심사관이 해외 출발항으로 미리 출국하여 입항 예정 크루즈에 승선 → 이동식 심사장비 등을 활용하여 국내 입항 전에 승객의 입국심사 완료 → 별도 심사 없이 바로 하선